

地區協議會活動

忠清南道 地區協議會의 活動을 내다보다

元 鍾 麟

“좋은 出發은 半의 成功이다”

무슨 일이나 업무를 내기 어려울 때에 이 금금처럼 힘을 주고 勉力의인 말도 드물것 같다.

앞날의 活動을 내다보기에 앞서서 暫時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나가는 것이 順序일것 같다.

우리 地區協議會가 發足한 것은 1960年 菊香이 짙은 어느 가을 날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헤아려서 年有餘의 歲月이 흐른것 같다.

겨우 圖書館學의 문턱에 들어선 헛병아리 司書教師 다섯사람(劉衡勝, 金容潁, 權漢遠, 李鍾千, 元鍾麟等)이 主軸이 되어서 大田大學 圖書館長 MOORE 女史를 會長으로 모신 가운데 우리 地區協議會의 創立總會를 열고 이고장 圖書館界의 不毛地帶에서 微力하나마 開拓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기로 굳게 약속을 하던것이 꼭 어쩔일 같이 새롭다.

서울 釜山等 輝煌하게 빛나는 先進地區들을 만 世界인양 限없이 부러운 눈초리로 아득하게 바라보며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기때 그저 초라하게 佛前に 첫발을 내디딘것이 그때의 숨김없는 우리들의 心情이었다.

그동안 道當局의 協助를 얻어 大田, 公州에서 2次에 걸쳐 短期나마 實務者를 爲한 講習會를 열었고 여기에서 輩出된 實務者들의 團合을 促進하는 뜻에서 다시 大田 한밭中學校에서 地區圖書館大會를 열었다.

이 모임에서는 몇가지 研究發表와 아울러 當面한 問題들을 앞에 놓고 眞摯한 協議時間을 갖어 學道的으로 우리 圖書館人들의 團結과 親睦을 再確認한 것은 時宜를 얻은 호뭇한 活動이었음을 自負하고 싶다.

昨年度에 열렸던 四次總會에서는 活動의 指標를 實質的인 活動의 核體가 될 市郡別 地區部會의 結成에 두고 南部地區會(大田, 大德, 論山, 錦山)一地區部會長 李起龍) 中部地區部會(公州, 扶餘, 青陽, 燕岐)一地區部會長 權漢遠) 北部地區部會(天安, 天原, 牙山)의 誕生을 보았으며 北部地區에서는 곧 첫 出發로서 市郡教育廳의 協贊을 얻어 國民學校教師를 爲한 實務者講習會를 열어서 다른部會에 좋은 刺戟을 주었다.

한편 公州師範大學 附設 中等教員 研修院과 公州教

育大學 附設 初等教員 研修院에서는 每期마다 6~9時間式 學校圖書館管理에 時間을 割愛해 주어서 짧은 時間이나마 學校圖書館에 對한 認識을 새롭게 할수 있는 機會를 갖게된 것은 정말 고맙고 반가운 일이다. 비록 地區協議會의 活動은 아니라고 하지만.

以上 極히 簡單하나마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1年間의 우리의 設計를 내다본다.

今年 2月 26日 第5次 定期總會가 大田市立圖書館에서 열려 다음과 같은 華麗한 活動目標를 다짐하고나니 이제 바야흐로 우리 忠南地區協議會도 成長期에 들어선 感이 들어 우리의 가슴이 뿌듯했다.

一. 司書教師의 養成

오늘날 우리 地區의 當面한 圖書館活動中에서 가장 緊迫하게 要請되는 것은 司書教師의 養成보다 더 切實한 問題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總會에서 우리 會員一同이 가장 渴望하는 가운데 이 問題의 解決을 活動의 第一目標로 내세우게된 것은 너무도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그 동안에도 道教育委員會와 共同으로 2次에 걸쳐 短期講習을 實施한바 있으나 微弱한 우리 地區協議會의 힘으로는 이 曠野 課題를 遂行할 수 없어 今年度에는 韓國圖協을 비롯하여 여러 關係當局의 아낌없는 指導를 목마르게 바라고 있다.

이 正規課程과 並行해서 年例的으로 實施해온 短期講習과 昨年度에 北部地區部會에서 앞장서서 實施한바 있는 國民學校圖書館實務者講習會도 計劃이 서는대로 繼續 實施하게 될것으로 믿고있다.

二. 學校圖書館研究發表會

5月 26일에 開催한 學校圖書館研究發表會는 指定校인 公州高等學校에서 道內 初·中·高等學校 校長 및 擔當教師가 會同한 가운데 “自學自習場으로서의 學校圖書館의 利用”이라는 議題아래 그 동안 쌓은 研究와 資料를 土臺로 充實한 研究發表가 있어 많은 成果를 거두었다.

館內 한 구석에 寢室을 마련하면서까지 年中無休의

奉仕를 배풀어가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人間道場으로서의 圖書館을 育成하고있는 그동안의 꾸준한 精誠으로 보람찬 열매를 보게 되었다고 하겠다.

三. 忠清南道 地區圖書館大會의 開催

公州高等學校의 研究發表會에 이어 다음날인 5月 27日에는 같은 場所에서 第2次 地區圖書館大會를 갖고 各級學校校長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道內 圖書館人이一堂에 모여서 우리의 位置를 다시 한번 굳게 돌아다보고 마음의 姿勢를 가다듬으며 議題發表와 아울러 그동안 쌓였던 問題를 眞摯하게 討議할 機會를 가졌다. 發表된 內容은 「學校圖書館에 있어서의 奉仕의 實際」, 「學習資料의 蒐集과 效果의인 活用」, 「讀書指導와 言語教育」等 學校圖書館의 當面한 몇가지 內容이 論議되었다.

四. 未結成 地區別部會 組織 및 活動

道內에 散在해 있는 우리 會員들이 자주 모여서 意見を 交換하며 보다 넓은 方向을 摸索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問題를 解消하기 爲하여 距離가 가까운 隣接市郡을 한데 묶어서 우리 地區協議會의 實質的인 活動體로 만들려는 地區部會組織運動은 昨年度의 活動目標로서 推進中 임은 앞에서서도 言及이 있었던 터이지만 今年에는 아직 結成을 못본채 남아있는 西北部地區(禮山, 唐津, 瑞山)와 西部地區(洪城, 保寧, 舒川)의 結成을 끝냈고 이제 本格的인 活動을 展開하게 된다. 活動內容은 地區別 特殊性에 비추어 一律的으로 規定지을 수는 없지만 大體로 隔月 內至 3個月에 1回式 輪番制로 當該市郡에 會同하여 協議會 또는 隣近 圖書館의 見學과 學校圖書館의 普及에 寄與하게 된다.

五. 地區協議會 任員의 巡迴指導

地區協議會의 會長團을 비롯한 여러 任員은 可及의

市郡部會의 協議會에 參席하여 意見を 나누며 當該地區內의 學校圖書館의 指導및 創設에 對하여 指導하고 助言한다.

六. “매스·콤”을 통한 啓蒙宣傳 活動

그동안에도 이미 實施해 오고있지만 道內 發刊 月刊誌나 道教育研究所報等を 통하여 圖書館普及運動이나 讀書運動을 展開한다.

以上 編輯部의 要請에 따라서 우리地區協議會의 앞으로 1年間의 大體的인 活動을 展望해 보았다.

創立한지 日淺하여 아직 별로 내용을 만한 實績을 쌓은 것은 없지만 우리 會員一同이 힘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 地區協議會의 發展을 爲하여 精誠을 바칠 覺悟이다.

끝으로 우리 地區의 新任員을 紹介하며 全國의 會員여러분께 鄭重히 人事드립니다.

- 會長 元 鍾 麟(公州大圖書館長)
- 副會長 申 圭 秀(大田市立圖書館長)
- 同 權 漢 遠(正安中學校監)
- 總 務 成 昊 濟(한밭中學校圖書館)
- 同 權 泰 順(大田市立圖書館)
- 幹 事 安 秉 武(大田商高圖書館)
- 同 金 弘 述(普文高校圖書館)
- 同 朴 桂 弘(忠南大學校圖書館)
- 同 李 鍾 錄(公州高校圖書館)
- 同 趙 基 弘(天安北中圖書館)

그동안 創設以來 總務에 在任하여 우리 地區協議會 育成에 心血을 기울여온 劉衡勝先生은 이번에 「뉴욕州立大學校」에서 一年間修學하기 爲하여 渡美하게 되어 不得已 總務를 辭退하였으며 亦是 幹事의 重責을 맡아서 우리 地區協議會의 튼튼한 基盤이 되어주던 高雄濟先生은 慶熙大學校司書主任으로 자리를 옮기었다. 튼튼한 두 기둥을 잃어 허전한 생각 그지없다. 두분의 앞날을 祝願한다.

(筆者 忠南地區協議會會長)

1965年度 協會費를 早速히 納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에 계시는 團體會員 諸位는 빨리 會費를 納入하여 주셔야 만 配付函의 圖書를 定期的으로 發送해 드릴수 있습니다.

事 務 局